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콘텐츠

유원선

사회복지사,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전문위원
前)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목차

- 1 들어가며
- 2 MBC충북(TV) 〈퍼펙트샷〉: 핸드볼 공 안에 담긴 세상
- 3 TBN경인(Radio) 제4회 한국 수어의 날 특집 〈내 마음이 들리니〉: 소통하며 살기 위해
- 4 극동방송(Radio) 〈그곳을 떠난 사람들〉: 탈북민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며

요약

이 글은 지상파방송사에서 최근 제작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콘텐츠’들을 소개한다. 국내 첫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선수들의 지난 2년간 훈련과정을 기록하며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담은 MBC충북의 〈퍼펙트샷〉,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일을 기념해 한국 수어에 대한 청취자 인식을 고취하고, 농인(청각장애인)과 청인(비청각장애인)의 소통의 장을 만든 TBN 경인교통방송 제4회 한국 수어의 날 특집 〈내 마음이 들리니〉, 그리고 다양한 탈북동기를 가진 10년 이내 탈북한 사람들의 대한민국 정착기와 그들의 꿈을 방송한 극동방송의 〈그곳을 떠난 사람들〉이 그 작품들이다. 해당 콘텐츠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로 조명하며 그들을 삶의 주체이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습을 보여준 작품들이다. 이처럼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그들의 일상과 목소리를 들려주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1. 들어가며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탈북민 등 특수한 여건 혹은 장애 때문에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가까운 주변에서 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와 분리되어 있기에 그렇다. 그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문제일지 모른다. 사회적 약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주 보이고 부딪히고 불편해야 좀 더 편하게 함께 하기 위한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점점 자체가 부재하다. 여기 소개된 방송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일상과 목소리를 들려준다. 주변에 잘 보이지 않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사회적 약자가 살기 편한 세상은 분명 나에게도 좋은 세상일 것이므로.

2. MBC충북(TV) <퍼펙트샷> : 핸드볼 공 안에 담긴 세상

[그림 1] 퍼펙트샷



출처 : MBC충북

<퍼펙트샷>¹⁾은 발달장애인 핸드볼팀의 훈련과 리그, 거기에 참여하는 각 팀의 선수들과 감독의 이야기를 담은 MBC충북에서 제작한 2부작 프로그램이다. 청주 충북팀, 안동

1) 2023년 12월 방영 후 2024년 4월 16일~4월 23일 MBC 네트워크특선 '운명처럼 핸드볼(2부작)'로 재방영

경북팀, 안양 경기팀 등 전국의 발달장애인 핸드볼팀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중 충북팀의 에이스 선수인 김생수 선수의 일상과 성장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그들에게 핸드볼이라는 스포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1) 발달장애인이 만나는 세상, 그 자체인 부모

본 방송에서는 청주 충북팀 김생수 선수의 부모와 안동 경북팀 김수일 선수의 아버지 모습이 그려진다. 김생수 선수의 부모는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는데 4명의 자녀가 모두 발달 장애를 가졌다. 일용노무직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는 아버지의 모습과 막내인 김생수 선수를 제외한 형제들은 집에서 나가지 않아 어머니의 전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모습이 비친다. 넉넉지 않은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끝없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로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워 보인다. 하지만 부모는 아들 김생수 선수를 더 지원해 주지 못하는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김생수 선수는 성공하여 부모님께 은혜 갚는 날을 꿈꾼다. 그런 부모와 아들이 함께 꾸는 꿈은 김생수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다. 그게 설령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 하더라도 이 가정에 들어온 희망은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힘이 된다.

[그림 2] 퍼펙트샷



출처 : MBC충북



안동 경북팀의 김수일 선수는 늘 아버지와 함께 다닌다. 아버지와 핸드볼 개인 훈련을 하고 일정에 동행하고 함께 놀이동산에 간다. 아버지는 대화를 나누는 친구이자, 선생이자, 매니저이자, 김수일 선수의 전부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발달장애인 자녀와 늘 동행하는 부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성인이 되어도 혼자 자립하기 어려워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고 그 돌

봄의 뭉은 흔히 부모 중 한 명이 되기 마련이다. 자녀가 좀 더 사회와 소통하며 그 안에서 관계 맺고 역할을 하길 바라지만, 그것은 늘 바람일 뿐 발달장애인 자녀의 세상은 그저 부모가 처음 이자 끝인 경우가 많다. 김수일 선수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 라디오에서 장애인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은 부모의 비극적 뉴스가 흘러나온다. 아버지가 김수일 선수에게 묻는다.

[그림 3] 퍼펙트샷



출처 : MBC충북

“우리 수일이는 몇 살까지 살 거야?”

“100살.”

“100살까지 살아버릴 거야? 그럼 아빠는 150살까지 살아야 하겠네. 그래... 그럼 아빠는 어떡하지, 수일아.”

이 질문은 아버지가 김수일 선수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지만, 우리 사회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2) 나를 이해해주는 어른인, 감독

핸드볼팀의 주인공은 당사자인 발달장애인들이지만 또 하나의 큰 축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감독들이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영광을 얻었던 프로 선수들이 장애인팀의 감독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수십 년 만의 코트로 돌아와 감회가 남다른 감독들은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선수들을 만나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프로 선수였던 감독들에게 취미 장애인 선수팀의 열정과 실력이 눈에 찰 리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이미 핸드볼이라는 스포츠가 선수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있는 듯하다.

[그림 4] 퍼펙트샷



출처 : MBC충북



충북팀 김미화 감독은 얘기한다. “핸드볼을 하는 이 힘으로 삶의 어려운 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은 핸드볼 훈련에서, 경기에서 근력을 기르는 듯하지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고 있다는 것을 감독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살아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핸드볼을 통해 좀 더 사회 속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부모 외에 나를 이해해 주는 또 한 명의 어른인 감독이 이들의 인생으로 들어왔으니 그것만으로도 선수들은 큰 재산을 얻었음이 틀림없다.

3) 핸드볼로 세상을 만나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그림 5] 퍼펙트샷



출처 : MBC충북



발달장애인 수는 총 26만 3천 명(2022년 등록기준¹⁾)으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경우를 통칭한다. 이들의 삶은 자의든, 타의든 사회적 교류와 소통이 제한적이고 집

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22.2%) 부모와 보내는 경우(32.5%)²가 대부분이다. 그런 이들에게 핸드볼이라는 스포츠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며, 그렇다고 전문 선수로 나아가는 길도 아니다. 함께 몸을 부대끼며 성장하는 동료와 생기는 일이며, 함께 경기 규칙을 공부하고 전술을 얘기하는 인생의 중대한 주제가 생기는 일이다. 더불어 본인들을 이해해주는 어른들이 늘어나고 경기를 통한 성취와 좌절을 경험하는 일이다.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훈련받고 몸을 아끼지 않았던 김생수 선수의 열정도, 그 열정이 지나쳐 당한 부상도, 프로 선수의 코칭으로 본인의 한계를 알아가는 것도 모두 세상과 만나 성장하는 과정이다. “핸드볼 공 너무 좋아요.”라는 김수일 선수의 고백처럼 무엇보다 흑백처럼 무료하고 단순한 이들의 삶 속에 재미라는 칼라의 빛이 켜지는 일인 것이다.

3. TBN경인(Radio) 제4회 한국 수어의 날 특집 <내 마음이 들리니> : 소통하며 살기 위해

2024년 2월 3일 제4회 한국 수어의 날을 기념하여 TBN 경인교통방송에서 <내 마음이 들리니>를 3편에 걸쳐 방송하였다. 1편 1부에서는 농인 화가인 오효석 씨가 게스트로 초대되어 농인으로서, 또 화가로서 그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2부에서는 초등학교 수어동아리인 ‘수세미(수어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아이들을 취재한 내용과 동아리에서 수어를 지도하는 수어통역사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2편은 ‘음악은 나의 힘’이란 제목으로 청각이 손실되어 인공와우 수술을 한 이후에도 음악 활동을 하는 연주자들이 초대되었다. 클라리넷 연주자 손정우 씨와 보컬 공다영 씨의 이야기와 연주를 듣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3편 1부에서는 청각장애인 연극단 ‘옥탑방 달팽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지수 씨가 출연하여 청각장애인이 겪는 상황을 방송극으로 들려주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2부에서는 수어통역사와 함께 수어로 노래를 가르쳐주고 함께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1)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현황>

2) 보건복지부,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그림 6] 한국 수어의 날 특집 방송 보이는 라디오 1편



출처 : TBN경인

1) 그림으로 소통

1편에 출연한 오효석 화백은 어려서 머리 수술을 받은 후 고열을 앓고 나서 청력을 상실하였다. 그림에 재능을 보인 그는 인천의 풍경을 화폭에 담아 인천을 대표하는 화가로 자리를 잡았다. 청각장애가 있어도 그림을 그리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재능을 펼치며 살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이름 앞에 굳이 ‘농인’ 화가라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는 청각장애로 인해 자라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그림에 심상을 넣으면 보는 사람들이 그 심상을 그대로 느낀다.”라는 것이다.

청각장애인 화가는 시각장애인 음악가를 떠오르게 한다. 비록 장애로 인해 남들보다 수십, 수백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들의 결과물은 장애가 없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다. 장애와 상관없이 한 분야 전문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농인’ 화가 혹은 ‘맹인’ 연주자가 아닌 그저 화가이고 연주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색안경은 벗고 그들이 재능을 펼치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지는 일이다.

2) 음악으로 소통

그렇다면 청각장애인의 음악은 어떨까? 청력을 잃었지만 음악 활동을 계속한 베토벤처럼 청력을 잃어도 인공와우를 끼고 음악 활동을 지속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2편에 초대된 클라리넷 연주자 손정우 씨, 보컬의 공다영 씨가 그 주인공이다.

두 게스트 모두 어린 시절 청력 손실로 인해 보청기로 생활하다가 청력이 더 악화하여 인공와우 수술을 하였다. 수술 후 바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을 통해 인공와우에 적응하고 소리를 알아듣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과정에 음악을 좋아하던 공다영 씨는 수술 후 처음에는 음정이 구분되지 않아 음악을 잃는 것이 아닌가 좌절하기도 했으나 꾸준한 노력으로 다시 음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청력을 잃고 인공와우로 다시 소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재활을 위해 오히려 음악을 많이 듣고 배워야 한다니 음악으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과정이라 하겠다.

[그림 7] 한국 수어의 날 특집 방송 보이는 라디오 2편



출처 : TBN경인

인공와우를 낀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본 적이 있다. 들리는 음역대와 소리의 한계로 완벽한 음정과 화음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는 과정이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희망이고,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절실함이다. 그래서 그들의 노래는 그 어떤 아름다운 화음보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아마 이들이 말하는 ‘음악의 힘’일 것이다.

3) 손으로 소통

손으로 하는 언어인 수어. 1편과 3편에서 수어통역사를 초대하여 수어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수어를 배우려는 노력은 수어를 유창하게 하겠다는 것보다 청각장애인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이고, 그들의 편에 서서 이해해보겠다는 배려이기에 소중하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 수어동아리를 만들었다는 학교 사회복지사의 이야기처럼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8] 한국 수어의 날 특집 방송 보이는 라디오



출처 : TBN경인



코로나 때 비대면 행사를 하면서 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보다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최근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 쪽 행사에 참여하면 수어로 통역을 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 ‘이걸 몇 명이나 본다고’ 하는 생각보다 참여를 포기해왔던 청각장애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다. 청각장애인이 원활하게 알아듣지 못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4. 극동방송(Radio) 〈그곳을 떠난 사람들〉 : 탈북민들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며

탈북민들의 사연을 다큐드라마로 제작한 극동방송의 <그곳을 떠난 사람들>은 2022년 10월 26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 1년에 걸쳐 방영한 20부작 방송이다.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을 결심한 계기, 탈북 과정 그리고 남한에서의 생활까지 약 30분에 걸쳐 당사자의 내레이션과 탈북민 출신 성우들의 방송극으로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이 펼쳐진다.

[그림 9] 그곳을 떠난 사람들



출처: 극동방송

1)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탈북민들은 북한에서의 배고픔, 자유에 대한 억압, 출신으로 인해 희망 없는 생활을 경험한다. 부모를 잃고 북한 보육원에서 자란 이○력 씨³는 지독히 배고프고 먹지 못한 서러움을 경험한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수많은 아사자가 발생한 기근 속에서 더욱 열악했던 보육원 생활. 그는 “지옥 속에 더한 지옥”으로 기억하는 그 시간을 버텨내고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온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모의 출신으로 인해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박○희 씨⁴ 역시 혼자 아들을 키우며 8살 아이를 집에 두고 문을 잠그고 일을 하러 나간다. 집에 간혀있던 아이는 어머니가 돌아오면 문을 박차고 나가 밤늦도록 혼자 운동장이나 산을 헤매며 놀다가 들어온다. 놀이를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린 채 그저 생존만 남아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누명을 쓰고 조사를 받으며 가족 모두 어려움에 처한 하○우 씨⁵의 사연도, 어머니가 먼저 탈북하고 이모네에서 살면서 눈칫밥을 먹으며 학교도 못 가고 어려서부터 땀감을 구하러 다녔던 한○미 씨⁶도 모두 다른 처지이지만 북한에서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있었다는 동질성을 가진다.

3) 2023.11.21. 방송 〈그곳을 떠난 사람들〉 17부

4) 2023.11.22. 방송 〈그곳을 떠난 사람들〉 18부

5) 2023.11.23. 방송 〈그곳을 떠난 사람들〉 19부

6) 2023.11.24. 방송 〈그곳을 떠난 사람들〉 20부

2) 목숨을 건 탈북의 결단과 그 과정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결국 탈북을 결단하게 한다. 건설돌격대에서 죽도록 노력하면 조선노동당 당원이 될 줄 알았던 이○력 씨는 출신성분의 한계를 느끼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박○희 씨 역시 북한에서는 아들의 삶에 희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탈북을 감행하게 된다. 본인 혹은 아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인 셈이다. 탈북 브로커를 하다가 수배 대상이 되어 갑자기 탈북한 하○우 씨는 생존을 위한 결단이었고, 어머니가 보낸 브로커를 따라 탈북하는 과정에서 잡힐 뻔하다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한 한○미 씨 역시 목숨을 건 탈출이었다.

3) 가족이 헤어져야 하는 이별의 아픔

목숨을 건 탈북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다. 박○희 씨는 아들을 두고 본인이 먼저 탈북한 뒤 나중에 어렵게 아들을 탈북 시켰으며, 한○미 씨 역시 어머니가 먼저 탈북하고 혼자 이모네에 남아있던 경우이다. 하○우 씨 같은 경우는 수배 중 급하게 도망치게 되면서 어머니와 결국 헤어지게 된다. 70년 전 한국전쟁 이산가족의 슬픔이 아직도 이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아들과 헤어졌다 1년 만에 재회하게 된 박○희 씨는 옆에서 자는 아들을 보면서 “가족이 함께 사는 평범한 일이 나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다.”라고 회고한다.

4)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않는 한국에서의 적응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한국에서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의 해피엔딩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탈북민들에게는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이 남아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탈북한 박○희 씨는 어린 아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마음이 아팠으며, 하○우 씨는 돈 벌고 일하는데 너무 매몰되어 과로로 병을 얻기도 한다.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만난 한○미 씨 역시 진로를 놓고 어머니와 의견이 부딪히는 과정을 경험한다.

탈북민의 숫자가 2023년 기준으로 3만 4천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⁷⁾에 따르면, 탈북민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일반 국민의 70%에 그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수급자 비율도 탈북민의 경우 29%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인 4.8%보다 훨씬 높다. 2023년 6월에는 탈북민 창업 성공사례로 꼽히던 ‘제시키친’의 김정향 대표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탈북민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도, 외로움과 고립감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본 방송의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탈북과정에서의 트라우마, 가족과 헤어져 사는 외로움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이○력 씨는 인터뷰에서 “명절이 아니라도 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돈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하지만,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줬고, 자유를 줬으니 알아서 살라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사연과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한국 사회 공동체 안으로 품어 들일 때, 비로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의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극동방송의 본 프로그램은 우리 주변에 있으나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탈북민들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7) 북한인권정보센터,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 통합실태조사>